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Parents' Family-of-Origin Experience on Parenting Efficacy

중앙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 전공
석사 전주혜*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박정윤**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ersity

Master: Jeon, Joo-Hye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ersity

Associated Professor: Park, Jeong-Yu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e the effects of parents' family-of-origin experiences on their parenting efficacy among 260 parents with children aged between 3 and 7.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depending on parents' gender, with children aged between 3 and 7, both parents were found to positively perceive each factor in their family-of-origin experience and parenting efficacy. Second, fathers showed differences based on their income satisfaction and their mothers' employment status in their family of origin. Mothers showed differences in parenting efficacy according to their age, monthly average family income, and economic status in their family of origin. Third, both parents' experiences with their family of origin were correlated with their parenting efficacy. Fourth, family-of-origin health was found to be the most significant

* 주저자: 전주혜 (jjuny47@naver.com)

** 교신저자: 박정윤 (pjy4838@cau.ac.kr)

family-of-origin variable influencing parents' parenting efficacy. Wealth and experience of triangulation were found to be the influential factors common to both parents. Fathers' experiences of acceptance from their parents in their family of origin was a predictive factor of parenting efficacy. In contrast, in the case of mothers with more than two kids, when their family of origin was an extended family and when the mother in their family of origin had stayed at home, they showed higher parenting efficacy in their current parenting.

Key Words : 원가족 경험(family-of-origin experience), 원가족 건강성(family-of -origin health), 아동기 경험(parents' childhood experience), 자기분화(self-differentiation),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이 태어나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접하게 되는 최초의 사회적 환경이자 아동의 성장 발달을 위한 직접적인 환경은 가정이다. 아동은 가정 안에서 전 생애에 걸쳐 부모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므로, 부모가 제공하는 양육 환경이 인간의 성장·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과거에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90년대 이후 양육행동에 선행되는 부모의 신념, 가치, 목표, 효능감 등의 인지변인이 양육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관심을 받아왔다.

그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최근 연구(최형성, 2001; 문혁준, 2005; 최기원, 2004; 김선희, 2005)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발달 간의 일차적 관계, 부모의 사회적 환경을 넘어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인지적 특성으로 양육효능감에 주목하고 있다.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parental efficacy)은 부모

의 인지적 측면과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으로, 양육효능감은 권위적이고 민주적인 부모역할수행과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이혜승, 2003), 부모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행동은 효율적이고(문혁준, 1999), 자녀에게 더 많은 충고를 하며, 자녀의 행동에 반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ogenschneider, Small, & Tasy, 1997). 특히, 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신체, 인지, 사회·정서 발달에 해당하는 양육행동을 더 강조하였으며,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자율을 격려하는 행동을 보였다(안지영, 박성연, 2002). 뿐만 아니라, 양육 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이며,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Coleman & Karraker, 1997; 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Teti & Gelfand, 1991). 반면, 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통제적, 강압적, 처벌적 양육행동을 보였으며, 부모는 양육에 대한 무력감을 조성하여 부정적인 양육행동 및 아동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Bugental, Bleu, & Cruzcosa, 1989; Coleman & Karraker, 1997; Gondoli & Silverberg, 1997; Teti & Gelfand, 199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유아의 인지적·정서적 자기효능감(전인옥, 이경옥, 1999), 어머니와 유아의 애착(Donovan & Leavitt, 1989), 모-자녀 관계에 있어 상호작용의 질(Tucker, Gross, Fogg, Delaney, & Lapporte, 1998), 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Rodrique, Geffken, Clark, Hunt, & Fishel, 1994), 유아의 사회적 능력(문태형, 2002)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문혁준, 2005). 이는 결국 아동의 적응이나 발달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최형성, 2005; Coleman & Karraker, 1997; Dumka, Stoerzinger, Jackson, & Roosa, 1996; Johnston & Mash, 1989).

한편, 세대간 관련성에 대해 다세대 치료이론을 주장하는 Bowen은 원가족을 중요시하고 원가족의 영향이 세대에 걸쳐 반복되는 점에 주목하였다. 가족문제 접근 시 원가족까지 확대하여 살펴볼 것을 주장하면서 세대에 걸친 부모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현재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그들의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세대 반복이 되므로(Nichols & Schwartz, 2001), 부모는 자신의 원가족에서 경험한 관계, 태도, 기대, 정서 또는 행동양식을 가지고 현재 가족 내에서 부모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Benson, Larson, Wilson & Domo, 1993).

어린 시절 원가족에서 부모가 자신에게 보인 양육경험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건강한 가족에서 성장한 개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정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김순기, 2001).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수준과 원가족에서 부모와 경험한 상호관계의 질은 개인의 정서적 건강뿐만 아니라 결혼 적응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며(권정란, 2005; Fine, 1988; Couillard, 1990), 가족체계 안에서의 결혼적응은 곧 부모자녀관계에까지 영향을 주어(장선웅, 2008; 조소희, 2008), 원

가족 경험은 세대간 전이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원가족 경험 중에서 대표적인 변인으로 자기분화는 개인이 가족과 적절하게 친밀감과 분리감을 획득해 가는 과정이며, 원가족에서 장기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가족으로부터 분화가 잘 이루어진 개인은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심리적 건강이나 관계형성에서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보았다(Lim & Jennings, 1996). 이처럼 원가족으로부터 한 개인이 잘 분화하는 것은 그의 일생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인이 되며, 부모 자신이 원가족에서 경험한 부모-자녀관계 유형을 자신이 형성한 핵가족 내에서 세대간 전수를 하게 된다.

본 연구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이전 세대의 가족관계 유형이 다음 세대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Bowen의 이론에 기초하였다. 원가족의 영향력은 세대간 전이 과정을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반면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경험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세대간 전이가 이루어지는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고,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중 원가족 변인과의 관계를 통해 원가족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더욱이 자녀의 양육환경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역할 또는 부모교육과 관련된 연구와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부모들은 아동 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존재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혹은 민간 기관에서 부모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교육 내용 및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지만, 교육적 측면의 일방적인 부모역할이나 의무감만 강조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부모의 효과적인 양육을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부모 자신을 돌아보고 원가족에서의 경험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을 통해 스스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부모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전까지 부모 각각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현대사회로 오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별에 따라서 행해질 수 있는 자녀 양육의 방법과 내용들이 다르고 그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므로, 성별에 따라 다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면 부모의 효능감 증진을 비롯한 부모교육의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양육행동을 결정짓는 부모로서의 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가족의 영향과 관계를 여러 변인들을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한 부모교육 현장이나 상담현장 등에서 원가족의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건강한 원가족 경험 및 양육을 위한 정보제공, 바람직한 자녀지도 및 부모역할에 대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와 부모역할지원 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적절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다. Johnston & Mash (1987)의 정의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이란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에 Dorsey와 그의 동료들(1999)은 양육효능감에 대하여 아동발달과 관련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였고, Teti와 Gelfand(1991)는 양육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의 신념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자녀의 발달적 결과에 대해 부모 자신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로도 볼 수 있다(Luster & Kain, 1987).

Teti와 Gelfand(1991)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머니로서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으로 부모역할에 적응을 돕고 자녀양육과 관련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주며, 양육행동의 근원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인지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효능감이 강조되는 이유는 부모 양육 태도의 잠재적인 근원으로 부모가 지각하는 자기 효능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혁준, 1999).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높은 효능감을 가진 부모는 아이들에게 좀 더 반응적이고 적절한 감독을 하는 등 유능한 양육행동을 나타냈다(Ardelt & Lord, 1995; Dorsey et al., 1999). 반대의 경우,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Ardelt & Eccles,

2001; Coleman & Karraker, 1997; Cutrona & Troutman, 1986). 또한, 양육경험이 많은 사람이 부모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거나, 부부로서 협조하고 돕는 관계일수록 어머니의 내적 효능감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부모로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양육효능감과 양육기술 및 양육행동이 개선된다는 연구결과들도 발견된다(Crockenberg, 1981; Frank,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 1986; 김현미, 2004 재인용).

국내 연구에서는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 수행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었다. 즉, 자신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부모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양육행동(문혁준, 1999; 안지영, 2001; 이미숙, 2001; 김미숙, 2005; 김경미, 2006)을 보였고, 우희정(1993)과 이숙(1994)의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자녀의 효능감 발달에 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신숙재(1997) 연구에서도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자녀를 지도하는 부모의 합리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더욱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훈육을 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고 보았다(안지영, 2001; 양옥승, 이정란, 2003, 김은영, 2005).

또한 Mondell과 Tyler(1981)는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아동을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취급하고 문제해결 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고, 일관되게 행동한다고 하였다. 또한 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신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에 해당하는 양육행동을 더 강조한다고 하였다(안지영, 박성연, 2002; Dorsey et al., 1999).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 하는 방식은 부모 자

신의 효능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아동의 적응이나 발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자녀의 양육행동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이 된다.

대다수의 연구들에서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의 질에 영향을 주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중요한 선행변인이라 볼 수 있다.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의 관련성이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특성과의 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모의 과거 특성과 관련지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의 과거 특성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은 많이 발표되었다. 그 중 원가족에서의 경험은 세대간 전이를 통해 양육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은 상관관계가 있고 양육행동에 있어 양육효능감이 선행변인이 된다는 점에 의해, 부모의 과거 특성인 원가족 경험은 양육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된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과거 특성을 살펴보고, 두 관련 변인이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탐색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원가족 경험

원가족(family of origin)이란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해 오는 동안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소속감을 가지는 가족으로, 결혼한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이전까지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인 소속감을 가져온 가족을 말한다(이종원, 2002; 김경자, 2004).

Adlerians 학파에서는 가족이 자녀의 생활방

식의 형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두어 가족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핵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책임감을 갖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Dinkmeyer, Dinkmeyer, & Sperry, 1987; Watts, 1997에서 재인용). 이는 가족간의 상호작용과 적응 패턴이 세대전이 됨으로써 자녀의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owen, 1978; Wilcoxon & Hovestadt, 1985; Wamboldt & Reiss, 1989; Allison & Sabatelli, 1998; 김경자, 2004 재인용). 또 사회적·정서적 발달은 연령에 맞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발달시키고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대인관계에 관한 중요한 신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가족성원들이 가족 밖의 대인관계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Satir, 1988; Bagarozzi & Anderson, 1989; Collins & Read, 1990; 장선웅, 2008 재인용). 즉, 원가족의 경험은 현재의 관계, 정서, 그리고 행동방식을 결정짓는 원천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Belsky & Vondra, 1993),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 자신의 원가족으로부터의 경험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Boszormenyi-Nagy와 Ulrich(1981)는 자녀와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아이의 조부모가 아이의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해 놓은 맥락 속에서 발달하게 된다고 보았다. 회전판(revolving state)의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의 윗세대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판에 박힌 행동을 아랫세대인 자신의 자녀에게 되풀이 한다고 설명하면서, 원가족으로부터 세대전이가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최진숙, 2006). 이러한 세대전이에 따른 원가족 경험은 크게 원가족 건강성, 부모와의 애착, 자아분화로 볼 수 있다(정미경, 2003; 정문자, 전연진, 김진이, 2004; 박소현,

2005; Deklyen, 1992).

이처럼 원가족 건강성과 아동기 양육경험, 자기분화에 따른 원가족 경험은 세대간 전이를 통해 현재 가족체계를 비롯하여 자녀의 양육환경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양육환경 이전에 부모로서의 효능감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된다.

3. 원가족 경험과 양육관련 선행연구 고찰

원가족 건강성은 어린 시절 개인이 성장한 가족 안에서 자율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느끼고 지각한 정도로 원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성을 의미한다(하상희, 2007). 원가족 건강성에 대하여 Benson과 그의 동료들(1993)과 Larson과 그의 동료들(1998)의 연구에서 원가족의 영향이 자녀세대의 이성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여 원가족의 영향이 자녀세대까지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Bartle-Haring과 Sabatelli(1998)는 부모의 원가족 경험은 자녀들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Couillard(1990)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이 가족원의 믿음과 가치 및 대인관계기술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자녀의 정서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국내에서도 전영주(1996, 1998)는 세대간 정서 체계의 전수 형태를 밝힘으로써 원가족 건강성에 대한 전수 경로를 검증하였으며, 그 이후 대부분의 연구에서 원가족을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지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모두 자신의 원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성 지각이 현재 자신의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윤혜영, 2000; 김순기, 2001; 이종원, 2002; 최난경, 2004; 권정란, 2005). 또한 하상희(2007)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세대가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은 부모

가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밝혀지면서, 원가족 건강성의 세대간 전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원가족 경험에 대한 연구는 크게 부부관계를 비롯한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와 현재의 핵가족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부모의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는 자녀들의 장래 결혼생활과 부부적응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델이 되며(장선웅, 2008),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는 가족 기능의 안정적 바탕을 제공하고 유능한 부모역할을 하고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결혼생활의 만족과 지원이 긍정적인 양육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Belsky & Isabella, 1985; Cox, Owen, Lewis, & Henderson, 1989; Dickie & Matheson, 1984, 김희주, 1997 재인용). 또한, 부부관계의 질과 양육간의 관계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부부관계가 원만하면 긍정적인 양육을 보이는 반면, 부부관계가 불만족스러우면 자녀양육도 소홀하게 된다(Belsky & Isabella, 1985; Esaterbrooks & Emde, 1990)는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이 뒷받침된다.

부모의 아동기 경험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생애 초기의 부정적인 애착형성이 성인기에 결혼갈등을 야기시키고(강차연, 1999), 원가족 관계의 질을 부정적으로 회상한 사람들이 자신의 결혼관계의 질도 더 부정적으로 보고하였으며,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와의 애착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다(Strand & Wahler, 1996). Morris(1980)는 자녀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어머니는 불안정하게 애착된 어머니보다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자신의 어머니가 양육적이며 정서적으로 지지해주었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아동기 경험과 인성특성간의 관계는 어릴 적의 양육방식이나 가정 분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가 어렸을 때 그 부모로부터 받은 지지적인 경험은 긍정적인 양육에, 부모로부터 받은 강압적인 경험은 자신의 강압적인 자녀양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Simons, Beaman, Conger, & Chao, 1993). 즉, 긍정적인 인성특성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에게 바람직한 양육을 보이는 반면, 부정적인 인성특성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에게 부적절한 양육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rossman, Pollack & Golding, 1988; Bettes, 1988). 결국 부모가 자신의 아동기 때 경험한 부정적 측면은 자기 자녀의 양육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Meter, 1990; Belsky & Vondra, 1993).

부모의 아동기 때 자신의 아버지가 양육에 많이 참여했던 경험이 있으면 아버지 자신도 자녀의 양육에 높은 수준으로 참여한다는 연구 결과(Belsky, 1984)를 통해, 아동기에 자기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자녀 양육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애착관계를 토대로 효율적인 양육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동기에 자신의 부모와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한 부모의 양육이나 부모로서의 역할 모델이 긍정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Bowen은 자기분화를 개인의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자기가 태어난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개별화된 정도를 말한다(제석봉, 1989; 김수연, 2001; Kear, 1978).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친밀한 접촉을 할 수 있고,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자신과 타인을 분리시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Kerr & Bowen, 1988; Nichols & Schwartz, 2001). 또한,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된 부모는 유아기 때부터 그들의 부모로부터 독특한 개체로 그 존재가 인정되고 분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Kear, 1978). 자신과 타인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성숙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자녀에게 있어서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도록 개성화를 증가시키는 등의 건강한 양육을 나타낸다.

반면, 원가족으로부터의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타인과 쉽게 융합을 이루며, 자신과 타인을 분리시키기가 어렵게 되므로(Nichols & Schwartz, 2001), 자녀에게 투사과정을 통해 자신의 미분화와 미성숙을 전달하게 된다. 이는 세대전이를 통하여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을 그대로 자녀에게 전이시켜 자녀의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녀의 문제행동까지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Fauber, 1990; Osborne & Fincham, 1996).

원가족 분화수준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원가족 분화수준이 낮은 부모는 불안감이 높아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부모-자녀관계가 덜 친숙하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의 개별화가 미약하여 삼각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Hoffman, 1984). 원가족에서 정서적 단절을 많이 경험할수록 부모는 고립된 소외에서 오는 불안으로 현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융합을 초래하여 자녀와 갈등적인 상호작용을 한다(유은희, 전춘애, 1995).

이처럼 원가족 경험과 양육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들의 원가족에서의 경험들은 개인의 건강한 정서와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부모자녀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녀의 양육을 비롯한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원가족 경험과 자녀양육과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관련성을 토대로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에 선행하는 인지적 특성 변인인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성에 따라 원가족 경험, 양육효능감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라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성에 따라 원가족 경험과 양육효능감은 어떠한 관계인가?

연구문제 4) 부모의 성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원가족 경험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 4곳에 다니고 있는 만 3-7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로, 아버지, 어머니 각각 150명씩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으로 실시되었으며, 2009년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7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분석이 부적절한 내용과 부실 기재된 자료 1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60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에 따라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크게 부모변인과 원가족 변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집단	아버지	어머니	변인	집단	아버지	어머니	
		n(%)	n(%)			n(%)	n(%)	
연령	30세 이하	8 (7.3)	24(16.1)	첫자녀 연령	만3세	28(25.5)	35(23.3)	
	31-35세	39(35.5)	77(51.7)		만4세	25(22.7)	31(20.7)	
	36-40세	50(45.5)	44(29.5)		만5세	31(28.2)	49(32.7)	
	41세 이상	13(11.8)	4 (2.7)		만6세	20(18.2)	29(19.3)	
첫자녀 성별	남아	49(44.5)	70(46.7)		만7세	6 (5.5)	6 (4.0)	
	여아	61(55.5)	80(53.3)					
교육 수준	고졸이하	27(24.5)	33(22.0)		총 자녀수	외동아	35(31.8)	54(36.0)
	전문대졸	8 (7.3)	27(18.0)	두명		69(62.7)	87(58.0)	
	대졸	58(52.7)	77(51.3)	세명 이상		6 (5.5)	9 (6.0)	
	대학원 이상	17(15.5)	13 (8.7)					
직업	전문직, 관리직	34(30.9)	24(16.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 (.9)	3 (2.0)	
	사무직	24(21.8)	18(12.0)		100-200만원	8 (7.3)	11 (7.4)	
	생산, 단순노무직	10 (9.1)	4 (2.7)		200-300만원	27(24.5)	35(23.5)	
	기술, 서비스직	15(13.6)	11 (7.3)		300-400만원	30(27.3)	41(27.5)	
	자영업	14(12.7)	7 (4.7)		400-500만원	20(18.2)	31(20.8)	
	전업주부	-	83(55.3)		500만원 이상	24(21.8)	28(18.8)	
	기타	13(11.8)	3 (2.0)					
종교	무교	58(52.7)	54(36.2)	소득 만족 정도	불만족	42(38.2)	41(27.5)	
	기독교	29(26.4)	55(36.9)		보통	49(44.5)	78(52.3)	
	불교	13(11.8)	17(11.4)		만족	19(17.3)	30(20.1)	
	천주교	8 (7.3)	23(15.4)	맞벌이 유무	유	40(36.4)	60(40.0)	
	기타	2 (1.8)	-		무	70(63.6)	90(60.0)	
가족 유형	부모+자녀	92(83.6)	128(85.3)	결혼 상태	초혼	110(100)	146(97.3)	
	조부모+부모+자녀	13(11.8)	21(14.0)		기타(재혼, 사별)	-	4 (2.7)	
	기타	5 (4.5)	1 (.7)					
출생 순위	장남/장녀, 외동아	54(49.5)	62(41.3)	원가족 유형	핵가족	71(67.0)	116(78.4)	
	차남/차녀	18(16.5)	51(34.0)		확대가족	25(23.6)	23(15.5)	
	막내	37(33.9)	37(24.7)		한부모가족	10 (9.4)	9 (6.1)	
원가족 경제 수준	가난한편	34(30.9)	37(24.7)	원가족 부모 취업유무	부	유	108(99.1)	144(97.3)
	보통	57(51.8)	91(60.7)			무	1 (.9)	4 (2.7)
	부유한편	19(17.3)	22(14.7)		모	유	46(42.6)	77(51.3)
			무			62(57.4)	73(48.7)	

* 사례 수는 총 260명임. 표에는 무응답을 제외하였음.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종합해보면,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이며, 가족 월평균 소득도 300만원 이상인 대상자가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첫 자녀가 유아기 자녀인 부모들로, 중상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측정도구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먼저 부모변인으로 성별, 연령, 첫 자녀의 성별 및 연령, 자녀수, 교육수준, 종교, 사회경제적 수준, 소득만족정도, 직업 및 취업유무, 맞벌이 유무, 결혼상태, 가족유형을 살펴보고, 원가족 변인으로는 출생순위, 어린 시절 부모의 취업유무, 원가족유형, 원가족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을 포함하였다.

2) 원가족 경험

(1) 원가족 건강성

원가족 건강성 척도는 Hovestadt와 그의 동료들(1985)이 제작한 Family of Origin Scale (FOS)을 기초로 최현미(1997)의 원가족 척도 (the Family of Origin Scale-55:FOS-55) 중 원가족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건강성을 측정하는 16문항을 사용하였다. 개인이 자신의 원가족 건강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원가족 건강성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alpha=.93$ 이었다.

(2) 부모의 아동기 경험

부모의 아동기 경험 척도는 원가족에서 부모가 자라오면서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바를 측정하는 Epstein(1983)의 부모-또래-척도(Mother-Father-Peer Scale: MFPS)를 전현

진(1996)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래 부모-또래 척도(MFPS)는 총 70문항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순수하게 부모의 아동기 경험으로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경험만을 측정하고자 부모 이상화 차원과 또래상호작용 차원을 제외한 부모 각각의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 12문항과 수용 대 거부 차원 9문항을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기 때 모와의 경험 신뢰도는 Cronbach $\alpha=.84$ 이었으며, 부와의 경험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82$ 이었다.

(3) 자기분화

자기분화 척도는 개인이 결혼, 학업, 취직 등의 이유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부모와 맺었던 정서적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원가족 분화경험척도로서, 전연진(2002)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는 한 개인이 자신의 원가족에서 미해결된 정서적 애착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물리적 거리를 두어 회피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정서적 단절'(12문항), 가족 안에서 부부간에 긴장이 발생하면, 긴장을 해소, 완화시키기 위해 부부 중 한명이 자신들의 문제에 자녀를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삼각화'(7문항), 한 개인이 원가족으로부터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분리를 경험한 것을 의미하는 '정서적 분리'(7문항)가 포함된다.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가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와의 분화 정도에 대해 각각 응답하게 되어 있어 총 52문항이 사용되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정서적 분리'와 달리 '정서적 단절'과 '삼각화' 문항은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 경험을 하였음의 의미로 해석이 되므로, 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두 요인을 역채점 하여, 자기분화 세 하위요인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원가족 분화경험을 긍정적

으로 하였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모와의 분화 신뢰도는 Cronbach $\alpha=.80$ 이었으며, 부와의 분화 신뢰도는 Cronbach $\alpha=.78$ 이었다.

3)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의 척도는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능력이나 지식, 행동 등을 비롯하여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수용, 자녀와의 의사소통 능력, 자녀의 학습지도 능력, 자녀를 통제하고 훈육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5점 Likert 척도로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양육효능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alpha=.95$ 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인들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평균차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일원변량분석(ANOVA)과 사후검증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간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로 검증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성에 따라 원가족 경험, 양육효능감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성에 따라 원가족 경험, 양육효능감의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부모 모두 원가족 건강성과 아동기 경험,

<표 2>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련 변인의 경향성

변인		아버지	어머니	t값	
		M(SD)	M(SD)		
원가족 경험	원가족건강성		3.71(.62)	3.69(.62)	.355
	아동기 경험	모의 독립성조장	3.29(.43)	3.25(.46)	.712
		모의 수용	3.54(.52)	3.50(.63)	.634
		부의 독립성조장	3.33(.42)	3.24(.40)	1.711
		부의 수용	3.28(.64)	3.33(.61)	-.544
	모분화	정서적단절	4.06(.74)	3.84(.92)	2.101*
		삼각화	3.86(.74)	3.80(.71)	.620
		정서적분리	3.66(.60)	3.58(.59)	1.077
	부분화	정서적단절	3.95(.81)	3.69(.95)	2.394*
		삼각화	4.06(.68)	4.09(.62)	-.402
정서적분리		3.50(.63)	3.39(.63)	1.432	
양육효능감		3.70(.48)	3.73(.38)	-.385	

*p<.05, **p<.01, ***p<.001

자기분화 각 하위요인 및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1-5점의 범위에서 중간값인 3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부모 모두 각 요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성에 따른 차이는 부와 모로부터의 분화수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단절($p<.05$)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원가족에서 자신의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 점수가 어머니의 원가족에서 자신의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아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원가족에서 자신의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을 적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라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표 3>과 같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소득만족정도 ($p<.05$), 원가족에서 모의 취업유무($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의 월평균 소득을 불만족스러워하기보다 ‘보통’으로 지각하는 집단의 아버지들과 어린 시절 원가족에서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보다 취업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인 경우,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

<표 3>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

변인	구분	아버지		어머니	
		n	M(SD)	n	M(SD)
연 령	35세 이하	47	3.72(.53)	101	3.77(.38)
	36세 이상	63	3.70(.44)	48	3.63(.36)
	t		.20		-2.14*
첫 자녀 성별	남아	49	3.69(.49)	70	3.75(.41)
	여아	61	3.72(.47)	80	3.71(.35)
	t		-.34		.64
첫 자녀 연령	3-4세	53	3.77(.45)	66	3.71(.41)
	5-7세	57	3.65(.49)	84	3.74(.35)
	t		1.29		-.42
총 자녀수	외동아	35	3.70(.41)	54	3.79(.43)
	두명 이상	75	3.71(.51)	96	3.70(.34)
	t		-.05		1.43
교육수준	전문대졸이하	35	3.65(.55)	60	3.69(.36)
	대졸이상	75	3.73(.44)	90	3.76(.39)
	t		-.81		.48
종교유무	유	52	3.68(.50)	95	3.75(.37)
	무	58	3.73(.46)	54	3.69(.40)
	t		-.49		.91
월평균소득	200만원 이하	9	3.50(.44)	14	3.54(.39)
	200-400만원	57	3.67(.53)	76	3.71(.38)
	400만원 이상	44	3.80(.39)	59	3.80(.36)
	F		1.81		2.78

〈표 3〉 계속

변인	구분	아버지		어머니	
		n	M(SD)	n	M(SD)
소득 만족정도	불만족	42	3.55(.54)a	41	3.60(.39)a
	보통	29	3.82(.38)b	78	3.79(.36)b
	만족	19	3.78(.48)ab	30	3.75(.38)ab
	F		3.98*		3.66*
직업	전문직,관리직	34	3.71(.48)	유 67	3.76(.41)
	사무직	24	3.77(.46)		
	생산직,단순노무직	10	3.40(.38)		
	기술직,서비스직	15	3.80(.47)	무 83	3.70(.35)
	자영업	27	3.71(.51)		
	F(t)		1.29		.97
맞벌이유무	유	40	3.70(.45)	60	3.76(.42)
	무	70	3.71(.50)	90	3.71(.35)
	t		-.13		.73
현재가족 유형	핵가족	97	3.70(.46)	129	3.73(.38)
	확대가족	13	3.76(.61)	21	3.72(.39)
	t		-.43		.13
출생순위	첫째	54	3.77(.51)	62	3.73(.37)
	둘째 이상	56	3.65(.44)	88	3.73(.38)
	t		1.42		-.04
원가족 유형	핵가족	81	3.69(.47)	125	3.72(.37)
	확대가족	24	3.74(.48)	23	3.79(.40)
	t		-.46		-.80
원가족 모의 취업유무	유	46	3.60(.43)	77	3.70(.36)
	무	62	3.79(.50)	73	3.76(.40)
	t		-2.05*		-1.04
원가족 경제수준	불만족	34	3.61(.43)	37	3.61(.39)a
	보통	57	3.73(.46)	91	3.79(.37)a
	만족	19	3.83(.59)	22	3.68(.38)a
	F		1.35		3.11*

*p<.05

어 부모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연령(p<.05), 소득만족정도(p<.05), 원가족에서의 경제수준(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연령

이 어릴수록, 현재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불만족스럽기 보다는 ‘보통’이라고 지각할수록, 자녀에 대해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의 성에 따라 원가족 경험과 양육효능감은 어떠한 관계인가?

부모의 성에 따라 원가족 경험의 각 하위요인과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으로 원가족 건강성, 아동기 경험, 자기분화의 각 하위요인과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는 .27-.54 사이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버지가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독립적이며 수용적인 양육을 경험할수록,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분리되고, 정서적 단절과 삼각화를 적게 경험할수록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으로 자기분화를 제외한 원가족 건강성, 아동기 경험의 각 하위요인과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는 .17-.31 사이에서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단절과 어머니와의 삼각화를 제외한 아버지와 삼각화와 부모와의 정서적 분리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건강한 분리를 경험할수록,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고, 적절히 수용되었을수록,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양육효능감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4. 부모의 성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원가족 경험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부모의 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모델로, I 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II 단계에서 원가족 건강성을 모델에 추가하였다. III 단계에서는 I 단계 모델에 원가족에서 어머니와의 아동기 경험 및 모분화의 삼각화를 투입하고, IV 단계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원가족에서 아버지와 아동기 경험 및 부분화의 삼각화를 투입하였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델 I에서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없었다. 모델 II에서 원가족건강성($\beta=.50, p<.001$)은 정적 방향으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원가족에서 모의 취업유무($\beta=-.24, p<.05$)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어린 시절 원가족의 모가 전업주부인 경우 양육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에서는 양육효능감의 설명력이 20%로 증가하여 총 37%를 설명하였다. 모델 III에서는 모델 I로부터 투입된 원가족에서 모와 관련된 변인 중 수용성($\beta=.45, p<.001$)은 정적 방향으로 유의미

(표 4)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가족경험과 양육효능감 상관관계

	원가족 건강성	모와의 아동기 경험		부와의 아동기 경험		모와의 자기분화			부와의 자기분화		
		독립성	수용	독립성	수용	정서적 단절	삼각화	정서적 분리	정서적 단절	삼각화	정서적 분리
아버지양육효능감	.43***	.30**	.50***	.27**	.42***	.54***	.31**	.50***	.52***	.37***	.50***
어머니양육효능감	.31***	.17*	.23**	.22**	.24**	.12	.14	.27**	.15	.20*	.22**

*p<.05, **p<.01, ***p<.001

한 영향변인으로 밝혀졌으며, 모델 I에 비해 28%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총 45%로 나타났다. 즉, 원가족의 어머니에게서 거부되지 않고 수용되었을수록, 자신의 자녀에 대한 양육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했다. 모델IV에서는 원가족

에서 부와 관련된 경험들이 투입되어, 모델 I에 비해 22%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총 39%로 나타났다. 모델IV에서는 부의 수용성($\beta=.41, p<.001$)과 부와의 삼각화($\beta=.23, p<.05$)는 양육효능감의 영향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아버

(표 5)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양육효능감							
		아버지				어머니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β	β	β	β	β	β	β	β
일반 적 특 성	연령	-.03	.01	-.01	-.00	-.13	-.15	-.12	-.13
	첫자녀성별	.06	.14	.11	.12	.07	.05	.06	.04
	첫자녀연령	-.16	-.17	-.10	-.18 ⁺	.09	.15	.10	.12
	총자녀수	.03	.08	.03	.10	-.15 ⁺	-.20*	-.21*	-.18*
	교육수준	-.08	-.06	-.09	-.11	-.03	-.01	-.02	.03
	종교유무	-.06	-.03	-.01	-.04	.11	.09	.12	.13
	월평균소득	.13	.12	.08	.14	.02	.00	.03	-.02
	소득만족정도	.17	.14	.10	.10	.15 ⁺	.13	.13	.14
	직업	-.03	-.07	-.05	-.03	.11	-.02	.03	.01
	맞벌이유무	-.05	.08	.12	.04	-.01	.06	.03	.07
	가족유형	.03	.04	.01	.00	.03	.01	.03	.03
	출생순위	.12	.06	.09	.11	-.02	.03	.02	.02
	출생가족유형	-.07	-.10	-.10	-.06	-.14	-.17*	-.18*	-.12
	모취업유무	-.22 ⁺	-.24*	-.18	-.18	-.16 ⁺	-.17*	-.18*	-.18*
원가족경제수준	.14	.05	.09	.11	.07	-.01	.03	.02	
원가족건강성		.50***				.33***			
모의 독립성 조장		.12				.14			
모의 수용		.45***				.20 ⁺			
모분화_삼각화		.16				.06			
부의 독립성 조장		-.03				.16 ⁺			
부의 수용		.41***				.16 ⁺			
부분화_삼각화		.23*				.20*			
F		1.13	3.06***	3.69***	2.90**	1.30	2.20**	1.75*	2.05*
R ²		.17	.37	.45	.39	.14	.22	.21	.23
ad.R ²		.25		.33	.26	.12		.09	.12
ΔR^2		.20***		.28***	.22***	.09***		.07*	.09**

*p<.05, **p<.01, ***p<.001, +p<.10

지로부터 수용될수록, 삼각화 경험을 적게 할수록 양육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모델 I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모델 II에서는 원가족 건강성 ($\beta=.33, p<.001$)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또한, 총 자녀수 ($\beta=-.20, p<.05$), 출생가족유형 ($\beta=-.17, p<.05$)과 원가족에서 모의 취업유무 ($\beta=-.17, p<.05$) 순으로 부적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총 자녀수가 둘 이상이며, 출생가족이 확대가족이며, 원가족에서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 어머니가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했다. 모델 I에 비해 9% 증가하여 총 22%를 설명하였다. 모델 III에서는 모의 수용 ($\beta=.20, p<.10$)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모델 IV에서는 원가족에서 부와 관련된 변인들 중 원가족에서 부와의 삼각화 ($\beta=.20, p<.05$)가 유의미한 영향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이 모델은 총 23%의 설명력을 보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서 기능한다는 전제와 부모의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세대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력을 여러 변인들을 통해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가족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원가족 경험으로 원가족 건강성, 아동기 경험, 자기분화수준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첫 자녀가 만3-7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원가족 경험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성에 따른 차이로 살

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부모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성에 따라 원가족 경험, 양육효능감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원가족 경험으로 살펴본 원가족 건강성, 아동기 경험, 자기분화수준과 양육효능감은 전반적으로 부모 모두 각 요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중 원가족에서 부모로부터 정서적 단절 경험은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적게 경험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자기분화수준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원가족에서 자신의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을 적게 경험하고, 삼각화나 정서적 분리 경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부부간에 원가족 분화수준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Bowen, 1976; McCreaner, 1988; Mee-Gaik, 1991; Vayghn, 1989)과 남편이 부인보다 정서적 분리가 잘 되었다는 최난경(2003), 권정란(2005)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Chodorow(1978)의 연구는 자기분화에서 분리·개별화 과정은 성역할 정체감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애착과 자율성의 발달에 성별의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연관 지어 본다면, 성 역할에서 남성성은 자율성으로, 여성성은 애착으로 특징지어지므로, 남성은 자신이 속한 가족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자아정체감을 발달시켜 가는 성숙한 과정을 거친다. 남성은 성인으로서 자라면서, 경제활동참여자로서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독립성을 부여받는다. 무엇보다 청년초기의 군복무 경험을 통하여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심리적으로 독립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제공받게 된다. 그러므로 정서적 단절 경험보다는 정서적으로 분리의 경험을 더 잘 이루게 된다. 반면, 여성은 부모로부터의 애착형성에 따라 자기분화수준의 영향을 받으며, 남성보다는 부모로부터 더 많은 애정과 관심 및 관계 속에서

부모와 건강한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 부모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정서적 단절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즉,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부여받는 성역할과 사회적 지위로 인해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단절을 더 적게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에서 집단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버지의 경우, 소득만족정도, 원가족에서 모의 취업유무의 변인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연령, 소득만족정도 변인이었다. 부모의 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소득만족정도를 제외하고는 집단차이를 보이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가족의 수입에 따라 부모의 효능감 및 유능감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이진숙, 2004; 이슬기, 2005; 김진희, 2004; 홍정유, 2006)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모 모두 가족의 월평균 소득에 대한 만족정도에 따라서 양육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가족 월평균 소득은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만, 부모들이 지각하는 자신의 가족 소득 만족 정도는 주관적인 기준이 된다.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금전적으로 많은 지출을 경험하게 되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투자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낮은 편이며, 가구의 월평균 소득보다는 자신의 가족 소득의 만족정도에 따른 경제적 안정감을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경우는 소득만족정도를 비롯하여,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남덕임(2004)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어머니가 어릴수록 첫 자녀에 대한 애착으로 양육과 그에 대한 지식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

이고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더 높게 지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원가족 경험의 모든 하위요인과 양육효능감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단절과 아버지와의 삼각화를 제외한 원가족 경험의 하위요인들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하고,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분리를 경험할수록,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고, 적절히 수용되어질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은 인지적 특성으로 자신이 부모로써,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는 원가족에서 부모와의 관계적 경험들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본인 역시 부모의 양육행동의 세대간 전이를 통해 습득하고 반복되는 과정으로, 그대로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원가족에서의 경험 및 부모와의 관계를 부정적 경험으로 지각하는 경우, 두 가지의 상반된 양육효능감을 지각할 것이다. 이전에 자신의 부모가 자신에게 보였던 행동들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으려는 것과 자신도 모르게 내면화되고 습득되어진대로 이전의 부모의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게 되는 경우이다. 즉,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나타나기 이전에 인지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효능감이 부모의 현재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이 높다(안지영, 2001; 최기원, 2004; 남덕임, 2004; 이슬기, 2005)는 연구결과와 달리, 원가족에서 자신의 부모와의 긍정적인 경험이 자신의 자녀를 양육함에 앞서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가지는데 중요한 변인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경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양육효능감에 있어 원가족 건강성이 높은 영향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원가족의 정서 분위기가 긍정적일수록 부모역할 자신감이 증가하고, 이는 부모의 양육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영희, 신희정, 채영문, 2007)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위로받고 지지받으며, 온정과 애정을 경험한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님이 자신에게 보였던 방식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며, 자녀에게 적극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ash & Hohnston, 1990; Meyer, 1990). 원가족 건강성은 전반적인 원가족의 분위기를 설명하며, 자율성과 응집성을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원가족 안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자율성을 부여받고, 한 가족으로써의 소속감과 응집성을 부여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한국 문화적 특성상 가족 혹은 혈연에 대한 응집성이 강한 편이라 볼 수 있다. 가족의 응집성 안에서 각 구성원은 각자의 위치에 맞는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데, 부모는 가족의 생계유지와 함께 자신의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가 된다. 건강한 원가족에서 자라난 부모는 가족의 건강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김순기, 2001), 가족의 건강성을 기본으로 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원가족 건강성은 자신의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도록 만드는 원가족 경험의 영향변인 중 하나라고 보여진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원가족 경험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전반적으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원가족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각 모델에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어,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보다 원가족의 경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는 현재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지각하기 보다는 경제활동 참여자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가족 부양의 의무를 잘 수행할 때 스스로 유능한 아버지라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이슬기, 2005). 또한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맺게 된다. 그렇다보니 아버지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보다는 자신이 원가족에서 부모와 함께 했던 경험이나 부모가 자신에게 보인 양육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은 세대간 전이를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효능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에 비해 원가족 경험의 영향력은 낮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어머니의 현재 특성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총 자녀수와 원가족 유형, 원가족에서 모의 취업유무에 따라서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어머니에게서 부모의 과거 특성이나 현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효능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첫 자녀가 유아기 자녀인 부모들에 한정시킨 점과 연결시켜 보면, 첫 자녀이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부담감은 더 클 것이라 보여진다. 즉, 어머니가 자녀 양육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자녀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따라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 즉, 본

연구에서는 그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단지 부모의 원가족에서의 경험만이 아니며, 부모의 과거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이외의 다양한 변인에 따라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위한 부모교육의 방향성은 성별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진다.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원가족의 경험을 더 많이 받고 있어, 아버지에게 있어서 원가족에서의 경험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될 가능성이 높다. 원가족에 대한 어린 시절의 경험들은 자신이 성장해오면서 혹은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어떻게 회상하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어린 시절 자신 부모의 올바르지 못하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보다 자신의 자녀에게 답습될 확률이 더 높고, 본인이 경험한 양육행동들이 자칫 당연하고 옳은 방법으로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자신의 어린 시절의 원가족과의 관계 및 경험들이 타인과의 관계, 결혼 이후에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에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우선적으로는 본인의 어린 시절의 경험에 대한 통찰력과 함께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시절 부모가 보였던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녀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올바른 양육행동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상대적으로 원가족 경험의 영향력보다는 현재 어머니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자녀 양육 환경 및 요인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의 경제적 측면이나 어머니의 심리적 측면, 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거나 양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지지체계가 있는지에 따

라 그들의 효능감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부모교육처럼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모역할에 대한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단순한 정보 제공 역할의 한계점을 벗어나 어머니들이 효과적인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 어머니들의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양육 환경에 대한 정보 체계를 제공해주거나 양육환경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며,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어린 첫 자녀의 부모들이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포커스를 가지고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부모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 높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표집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원가족 경험은 성인 자녀가 어린 시절에 원가족에서의 경험을 회상하여 측정하는 자기보고식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노년기 부모이거나 이미 생존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회상을 할 때 과거 기억에 대한 재해석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다. 또한 성인으로 자라 자신의 자녀를 키우게 되면서 부모에 대한 주관적인 관계 지각이 과거 어린 시절에 비해 긍정적으로 바뀌어졌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응답에 대한 정확성과 이를 객관화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참 고 문 헌】

- 1) 강차연(1999). 어머니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 서울여대 박사학위논문.
- 2) 권정란(2005).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기분화에 따른 부부적응 연구.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 3) 김경미(2006).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과 유아의 학습행동과의 관계.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4) 김정자(2003).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체계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박사학위논문.
 - 5) 김미숙(2005).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 6) 김선희(2005). 유아의 탄력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영향. 유아교육연구 25(4), 191-209.
 - 7) 김수연(2001).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 8) 김순기(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 9) 김영희, 신희정, 채영문(2007). 원가족의 정서분위기, 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 자신감이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2), 67-87.
 - 10) 김은영(2005).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및 훈육방식과 아동의 심리적 적응 문제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11) 김진희(2004). 아버지로서의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이론과 실천 14(1), 89-114.
 - 12) 김희주(1997).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도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13) 남덕임(2004).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정도와와의 관계. 신라대 석사학위논문.
 - 14)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 효능감이 자녀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15) 문혁준(2005). 취학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6(5), 139-149
 - 16)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17) 안지영, 박성연(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40(1), 53-68.
 - 18) 양옥승, 이정란(2003). 유아의 자기조절력 관련변인 간의 관계 분석. 교육방법연구 15(2), 143-159.
 - 19) 우희정(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20) 유은희, 전춘애(1995). 모의 자아분화수준과 모자간의 갈등이 청년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 137-153.
 - 21) 윤혜영(2000).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태도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22) 이미숙(2005). 어머니의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충북대 석사학위논문.
 - 23) 이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24) 이슬기(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가

-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 석사 학위논문.
- 25) 이종원(2002). 부부갈등과 관련된 원가족 변인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26) 이진숙(2004).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63-73.
 - 27) 이혜승(2003).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부모 역할수행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57-71.
 - 28) 장선웅(2008). 원가족 경험이 부부친밀감과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 29) 전영주(1998). 삼세대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과 성인 자녀의 우울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22-45.
 - 30) 정문자, 전연진, 김진이(2004).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자녀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2), 133-150.
 - 31)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32) 조소희, 정혜정(2008).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기분화가 핵가족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 33) 최기원(200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과의 관계. 수원대 석사학위논문.
 - 34) 최난경(2003). 부모의 원가족 분화수준과 자녀양육행동과의 관계.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35) 최진숙(2006). 부부갈등과 원가족과의 상관관계 연구. 상명대 석사학위논문.
 - 36) 최형성, 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 37) 하상희(2007).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 38) 홍정유(2006). 어머니의 놀이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수원대 석사학위논문.
 - 39) Allison, M., & Sabatelli, R. A.(1998).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as mediators of identity and intimacy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 1-6.
 - 40) Bagarozzi, D. A., & Anderson, S. A.(1989). *Personal, marital family myths: Theoretical formations and clinical strategies*. New York : Guilford Press.
 - 41) Bartle-Haring, S. & Sabatelli, R.(1998). An intergenerational examination of patterns of individual and family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903-911.
 - 42) Belsky, J. & Isabella, R. A.(1985).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to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hange Following the Birth of a baby: A Retrospective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 342-349.
 - 43) Belsky, J. & Vondra, J.(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Luster, T. & Okagaki, L.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 Lawrence Erlbaum, 227-250.
 - 44)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45) Benson, M. J., Larson, J., Wilson, S. M. & Demo, D. H.(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663-672.
 - 46) Bettes, B. A.(1988). Maternal depression and motherese: Temporal and intonational features. *Child Development* 59, 1089-1096.
 - 47) Bogenschneider, K., Small, A., & Tsay,

- J.(1997). Child, parent,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among parents of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 345-362.
- 48) Boszormenyi-Nagy, I., & Ulrich, D. N. (1981). Contextual family therapy. in A. S. Gurman & D. P. 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49)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Jason Aronson.
- 50) Coleman, P. K., & Karraker, K. H.(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51) Collins, N. L., & Read, S. 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52) Couillard(1990). *Differences in marital adjustment among couples with similar and dissimilar levels of emotional health in their family of origi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 53) Cox, M. J., Owen, M. T., Lewis, J. M. & Henderson, V. K.(1989). Marriage, adult adjustment, and early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0, 1015-1024.
- 54) Crockenberg, S. B.(1981). Infant irritability, mother responsiveness, and social support influences of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2, 857-865.
- 55) Cutrona, c. E., & Troutman, B. R.(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mediational me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56) Dorsey, S., Klain, K.,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09-305.
- 57)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58) Epstein, S.(1983). *The mother-father-peer scale*. University of Masschusetts-Amherst.
- 59) Fauber, R, L., Forehand, R., Thomas, A. M., & Wireson, M.(1990). A mediational of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23.
- 60) Fine, M.(1988).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health on family of origin levels of state and trait anxiety. *Family Therapy* 15, 51-57.
- 61) Grossman, F. K., Pollack, W. S., & Golding, E.(1988). Fathers and children: Predict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Fathering. *Development psychology* 24(1), 82-91.
- 62) Hoffman, J. A.(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63) Hovestadt, A, J., Anderson, W. T., Piercy, F. P., Cochran, S. W., & Fine, M.(1985). A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287-297.
- 64) Johnston, C., & Mash, E. J.(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

- chological* 18, 167-175.
- 65) Kear, J.(1978). *Marital satisfaction and attraction as a function of differentiation of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of Psychology, Fresno Campus.
- 66) Kerr, M. E., & Bowen, M.(1988). The Circumplex Model and Head Injury Family Types: A Test of the Balanced Versus Extreme Hypotheses. *Journal of Rehabilitation* 62(2).
- 67) Larson, J. H., Benson, M. J., & Wilson, S. M.(1998).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marital attitudes and readiness for marriage in late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19(6), 750-768.
- 68) Lim, M-G., & Jennings, G. H.(1996). Marital satisfaction of healthy differentiated and undifferentiated couples. *Family Journal* 4(4), 308-315.
- 69) Luster, T., & Kain, E. L.(1987).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9, 301-311.
- 70) Mash, E. J., & Johnston, C.(1990).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8, 167-175.
- 71) Mee-Gaik, N. G.(1991). *Family of origin 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healthy like, unhealthy lik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 72) Mondell, S., & Tyler, F. B.(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73) Morris, D.(1980). *Infant Attachment and Problem Solve in the Toddler: Relations to Mother's Family Hist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74) Nichols, M. P. & Schwartz, R. C.(2001).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Boston, London, Sydney & Toronto: Allyn & Bacon. 김영애 외 7인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75) Osborne, L. N., & Fincham, F. D.(199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hild adjustment: Does gender matter? *Merrill-Palmer Quarterly* 42, 48-75.
- 76) Satir, V.(1988).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77)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and Chao, W.(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1-106.
- 78) Teti, d.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79) Wamboldt, E. S. & Reiss, D.(1989). Defining a family heritage and a new relationship identity: Two central tasks in the making of a marriage. *Family Process* 28, 317-335.
- 80) Watts, Richard E.(1997). Using family-of-Origin Recollections in Premarital and Marriage Counseling. *Individual Psychology* 53(4).
- 81) Wilcoxon, D. S. & Hovestadt, A. J.(1985).

Perceived similarity in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and dyadic adjustment: a comparison across years of marriage. *Family Therapy* 12, 165-173.

- 투 고 일 : 2010년 10월 1일
- 심 사 일 : 2010년 10월 13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11월 19일